빈자리 채우는 다정한 발걸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심명자 글·윤여준 그림 '내일도 산책' 출간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 마음껏 뛰놀고, 배고프지 않게 지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바람이었다. 짧은 다리를 힘겹게 끌며 흙길을 걷던 이 강아지는 어느 날 다리를 다치고, 우연히 한 노부부를 만난다. 노부부는 강아지의 상처에 새살이 돋도록 돌보고, 닫힌 마음에 희망의 싹이 트도록 정성스레 품어준다. 그리고 그 강아지에게 '건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그렇게 이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됐다.

'내일도 산책' 삽화 중 일부

심명자 작가가 쓰고 윤여준 작가가 그린 그림책 '내일도 산책'(찰리북퍼)은 유기견 건이의 시선을 따라 사랑과 이별,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이 책은 심 작가가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시골집의 개가 자신을 돌보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오랫동안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장면이 오랫동안 작가의 마음에 남았고, 결국 글로 이어졌다.

책은 건이의 담담하면서도 간절한 목소리로 시작된다.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던 건이는 노부부를 만나 가족이 되고, 함께 걷는 산책길을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된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이며, 건이는 마음껏 달리는 순간마다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는 행복을 경험한다.

윤여준 작가는 색연필 특유의 부드러운 터치로 건이의 감정과 일상을 따뜻하게 그려낸다. 초록 잔디 위로 낙엽이 흩날리는 장면, 그

유기견 건이 시선으로 그린 만남·이별

상실을 지나 회복으로 가는 산책 기록

아래 발라당 누운 건이의 모습은 정겨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담아낸다. 집에서는 건이가 좋아하는 할아버지의 양말을 가지고 놀고, 그것을 베개 삼아 잠들기도 한다. 할머니는 그런 건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린다.

시간이 흐르며 할아버지의 병세는 깊어지고, 끝내 세상을 떠난다. 건이는 평소처럼 할아버지의 양말을 하나둘 물어다 거실 한켠에 모은다. 건이 나름의 방식으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슬픔에 잠긴 할머니는 그런 건이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낸다.

그러다 우연히 예전에 찍어둔 영상이 재생되고, 그 속에서 들려온 "건아, 산책 가자"는 할아버지의 말이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제야 할머니는 자신만의 아픔에 갇혀 있던 시선 너머에서 건이 역시 같은 슬픔을 겪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렇게 두 존재는 다시 함께 걷기 시작한다. 더 이상 세 사람이 함께하는 산책은 아니지만, 남은 둘은 단단하고 다정한 걸음으로 일상을 이어간다.

책 말미에는 새로운 생명이 등장한다. 산책 예절도 모르는 어린 존재가 이들의 길에 함께하면서, '내일도 산책'은 계속된다.

이 그림책은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넘어, 먼저 떠난 존재를 애도하고 남겨진 이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아낸다. 건이와 할머니의 시선을 통해 사랑과 상실, 그리움과 회복이 어떻게 삶의 일부가 되는지를 잔잔하게 보여준다.

심명자 작가는 "우리가 내미는 다정한 손길이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고, 약자의 곁을 지켜주는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삶과 죽음 경계서 써내려간 詩…위로를 나누다

김창수 시인 '당신 앞에서는' 시집 출간

'교육운동가', '생태운동가'로 불려온 김창수 시인이 투병의 세월 속에서 써 내려간 시집을 펴냈다.

김창수(사진) 시인이 펴낸 시집 '당신 앞에서는'(문학들刊)이다.

무주 푸른꿈고등학교, 담양 한빛고등학교, 광주 지혜학교 등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에 힘써온 그는 광주전남 녹색연합, 빛고을생협, 함양 온배움터(구 녹색대학교) 활동에도 참여하며 참교육과 참살이의 길을 걸어왔다.

제도권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시련이 따랐다. 33살에 급성간염 진단을 받은 이후 35년간 간이식, 심장판막, 부정맥, 뇌출혈 등 크고 작은 수술을 거쳤고, 2023년부터는 혈액암 항암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실천과 창작을 멈추지 않은 그는 병상 위에서 한 자 한 자 시를 적어냈다.

이번 시집은 여섯 부로 나뉜다. 전남대학교병원(제1부), 아산병원(제2·3부), 여수요양병원(제4부), 화순전남대병원(제5부)에서의 체험, 그리고 병원 밖에서의 순간들(제6부)을 담았다.

시인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절대자에게 간구하면서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묻고 깨닫는 과정을 진솔한 언어로 담아냈다.

작품에는 "의식 아득한 환자는 시간을 놓은 지 오래/간혹 들리는 아내의 기도 소리가/그나마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알려준다"('앰뷸런스 소회' 중), "자네가 이러면 안 되지/지혜학교 만드는 일 벌여 놓고/아니 되네 이 사람아"('친구의 눈물' 중) 등 병상의 체험이 녹아 있다.

김창수 시인은 "투병 중이거나 그 길을 지나온 이들이 작은 위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시집에 담아냈다"고 밝혔다.

한편 출판기념회는 오는 9월20일 오후 3시 광주 풍암동 광주다일교회 물댄동산에서 열린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슬픔의 틈새**=이금이 저자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 역사의 목소리.' 광복 80주년을 맞아 출간되는 '슬픔의 틈새'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을 깊이 있게 담아낸다. 주단옥, 야케모토 타마코, 다시 주단옥 그리고 올가 송까지. 이름과 국적이 몇 번이나 바뀐 80년의 세월 동안 숱하게 조국에게 배신당하면서도, 누구보다 간절하게 자기 삶을 개척해나간 '주단옥'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펼쳐 보인다.

/사계절·1만8천500원

▲**제국의 어린이들**=이영은 저자

1930년대 조선에 살던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을까. 할머니와 둘이 사는 어떤 아이는 먼 곳에 사는 친척에게 학교 수업료를 부탁하려고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걷는다. 또 어떤 아이는 아빠가 새로 산 차를 타고 경성을 구경한다. 이 다양한 이야기들은 1938년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글짓기 대회의 수상작으로, 모두 당시 조선에 살던 어린이들이 쓴 것이다. '제국의 어린이들'은 이 글들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고, 그러면서 소박하게 반짝이는 이 글들 속에 숨어 있는 시대적 배경을 파헤친다. /을유문화사·1만8천원

▲**돈으로 읽는 세계사**=강영운 저자

'돈으로 읽는 세계사'는 경제와 돈에서 시작되는 기존 경제사 책과 달리 인간의 욕망을 통해 경제를 들여다본다. 세상의 모든 발견과 발명품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등장했고, 이는 경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 고대 물물교환부터 현대의 가상화폐까지 모든 것을 담으려 욕심내기보다, 경제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 친근감을 전하는 데 주력했다. 그렇기에 금본위제, 중상주의, 은행과 주식, 채권의 탄생 등 현대 경제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16-19세기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교보문고·1만8천800원

▲**식물운동회**=신원미 글, 강은옥 그림

운동회는 여럿이 함께 다양한 운동 경기를 하며 정정당당한 승부, 상호 존중, 협동심, 책임감, 도전 정신 같은 스포츠 정신을 배우는 자리다. 스포츠 정신은 운동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필요한 태도다. 경기에 다양한 선수들이 출전해 협동하고 경쟁하듯, 일상에서도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돕고, 경쟁하며, 생활하기 때문이다. '식물 운동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보며 어린이들은 스스로 올바른 행동을 판단해 보고, 건강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배울 수 있다. /한솔수북·1만3천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